

# 무안 남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중단 촉구 성명서

**지역경제 흔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무안 남악점 입점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우리는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지역상권을 무너뜨리는 창고형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무안 남악점 입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대기업 자본을 무기로 삼은 유통·판매 시스템으로 전남 서남권의 유통시장을 잠식하여 지역의 상권과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우리는 대기업이 어떻게 지역경제를 유린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지를 롯데 아울렛의 남악점 입점으로 충분히 경험했다.

2017년 전라남도가 실시한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롯데아울렛 남악점과 LF스퀘어 광양점 입점 이후 무안, 목포, 광양, 순천의 소상공인 매출이 최대 49%까지 감소했다는 참담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상권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며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모든 힘을 쥐어 짜내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무안 남악점 입점은 상생이 아닌 대기업 자본의 횡포이며, 지역과 지역민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아주 위험하고 중대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무안 남악점의 입점이 철회되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 해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주)이마트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파탄을 초래하고, 지역 유통시장을 잠식 할 창고형 대형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무안 남악점 입점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2. 전라남도과 무안군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파탄을 가져 오는 대기업 유통 자본을 강력히 규제하고, 관련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8년 9월 18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